

김형익 목사의 율법과 복음

6강 율법과 결혼한 사람 vs 그리스도께 시집간 사람 (롬 7:1~6)

[지식과 경험, 교리와 실천의 균형]

지식이 없는 열심을 경계하라(롬 10:2).

그러나 율법과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.

율법과 복음을 아는 지식은, “아, 내가 이 복음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, 그 안에 있구나”하는 경험적 지식이 되어야 한다.

1. 누구나 열매를 맺고 산다.

무슨 열매를 맺고 사는가?

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,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(마 7:16~20).

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

: “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”(롬 7:4) → 거룩의 열매, 성령의 열매(갈 5:22~23)

육신에 있을 때(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 = 중생하기 전)

죄인이 맺는 열매 :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다(롬 7:5).

2.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?

A. 오해1 : 율법으로 성화를 이룬다. (= 율법주의/도덕주의).

이것은 자기 외에 이르게 하거나(위선) 참된 신자들을 좌절하게 함으로써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.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듯이 율법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.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주제이다.

B. 오해2 : 율법은 필요 없다. 하나님이 하신다. (= 율법폐기론/도덕률폐기론).

방종 내지는 무책임한 삶으로 가는 결과를 낳는다.

복음은 신자를 부도덕한 방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.

위의 두 가지 오해는 다 율법주의로 인도한다.

3. 율법과 결혼한 사람 vs 그리스도께 시집간 사람(1~6)

A. 결혼 제도의 비유(1~3)

“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”

1) 결혼은 두 사람의 남녀가 맺는 독점적/배타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.

2) 두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죽을 때 이 관계는 해소된다.

3) 만일, 한 여성이 배우자가 살아있음에도 다른 배우자를 만나 결혼 관계에 들어간다면, 그 여성을 음녀라고 부를 수 있다.

B. 결혼제도를 율법과 그리스도에 적용(4~6) :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시집 갈 수 없다.

- 1)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옛 사람은 율법과 결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.
- 2) 율법과 결혼한 옛 사람은 율법의 요구들, 율법의 형벌 기준, 율법의 복과 저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.
- 3)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.
- 4)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, 이 결혼이 성립되려면 율법과의 결혼 관계가 한편의 죽음으로써 끝날 때에만 가능하다.
- 5) 신자는 6:6과 7:4에 쓴 대로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옛 남편인 율법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 사람이다. : “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”(7:4)
- 6) 이렇게 죽은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시집을 갔다.
- 7) 율법과 신자의 옛 결혼 관계는 옛 사람의 죽음으로써 이미 종결되었다.
- 8)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일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다.
- 9)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죽음의 결과로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었다. 그리고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께 시집을 간 사람이다. 이것이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새로운 신분이다.

정리하면,

- 10) 율법과의 결혼 관계는 신자에게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.
- 11) 율법이라는 남편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인데, 율법은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죽은 신자를 정죄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.
- 12)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 안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.

C. 율법과 결혼 관계에 (매여)있는 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.

- 1) 결혼한 부부가 자녀(열매)를 낳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.
- 2)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다(4) : “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.”
- 3) 그리스도께 시집간 신부가 만일 계속해서 옛 남편인 율법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음행이다!
- 4)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충성스러운 일이 아니며 그리스도께 대한 모독이고 경멸이다.
- 5)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, 도덕적 삶으로 신앙을 대체하는 것은 영적 음행이다.
- 6) 열매는 결혼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자녀들에 비유된다.
- 7)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.